SK하이닉스

SK hynix Inc. · 000660 · 유가증권시장

11/6 코스피 −6.02% 급락으로 종가 1,132,000원까지 밀린 뒤 11/10·11 이틀 연속 반등해 1,277,000원을 회복했지만 52주 고점 대비 −57.2%이고 Forward PER은 2.5배

종합 판정
HOLD
긍정 의견 4 · 부정 의견 3 · 보류 0

발급 시점 가격	외부 목표가	52주 최저 · 최고	다음 실적 발표
127.7만원	0건	50.1만원 ~ 298.7만원	1월 27일경(야후 추정)
2026.11.11 종가 · +5.4%	목표가를 낸 기관 없음	고점 대비 −57.2%	26년 4분기 실적

01 핵심 데이터 4가지

11/6 코스피 −6.02%, 외국인 2.8조 원 순매도
장중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코스피 종가는 −6.02%) 하이닉스는 −10.44%(종가 1,132,000원)였고 거래량 790만 주는 20일 평균의 1.97배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2% 넘는 하락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 샌더스 상원의원의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요구와 미국 반도체지수 급락이 11/6 한국장에 전해졌고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없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83.3조 원, 영업이익률 80%
10/28 잠정 매출 104.6조 원은 처음 10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2분기 60.5조 원보다 +38%, 1년 전보다 +632% 늘었습니다

배당 주당 2만 원, 자사주 20조 원 추가 매입
3분기 배당 약 14조 원(기준일 11/30)과 20조 원 자사주를 합치면 시가총액 약 903.3조 원의 3.8%에 해당합니다

02 리서치 팀 토론 — 쟁점 6개 판정

11/6 코스피 −6% 급락 ×2	긍정	코스피 −6.02%와 삼성전자 −6.30%가 같이 내려 원인이 시장 전체에 있다는 긍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부정 의견이 말한 변동성은 위험이지만 기업 가치 훼손의 증거는 아닙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부정	계약이 하단을 지켜 주는 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안이 없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입법 윤곽이 나오면 다시 평가합니다.
주주환원	긍정	정규 배당 1만 원만 따져도 연 수십조 원 규모의 환원 능력이 순현금 98.7조 원으로 확인되는 긍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집행 속도는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Forward PER 2.5배	긍정	영업이익이 +38% 늘고 예상 EPS 성장률이 +49.0%여서 성장 대비 배수가 낮다는 긍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순이익 감소는 영업외손실 영향(보도 기준 외환 11.6조·투자자산 평가 22.9조, 분기보고서에서 내역 확인)이라 영업 실적과 구분됩니다.
11/10·11 반등	부정	거래량이 평균에 못 미치는 반등이라 신뢰하기 이르다는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거래량이 평균을 넘으며 20일선 1,308,100원을 지키면 다시 평가합니다.
주가 흐름	부정	20일선·60일선·200일선이 모두 위에 있어 추세 전환 신호가 없는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20일선 종가 회복이 첫 확인입니다.

종합 판정은 HOLD이며 실적·주주환원·낮은 배수가 긍정 의견, 규제 우려·거래량 없는 반등·무너진 주가 흐름이 부정 의견으로 맞서고, 11월 중순 3분기 분기보고서와 미국 규제 구체안에서 판정이 다시 열립니다.

03 판정이 바뀌는 조건

▲ 판정이 좋아지는 조건

11월 중순 분기보고서
영업현금흐름이 2분기 65.4조 원 수준을 이어 가고 영업외손실 32.6조 원의 내역이 일회성으로 확인되면 긍정입니다.

주가 방어선
종가가 20일선 1,308,100원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20일 평균 400만 주를 넘으면 반등이 힘을 얻습니다.

미국 규제 구체안
데이터센터 규제가 건설 중단 없이 속도 조절 수준으로 정리되면 수요 전제 우려가 풀립니다.

▼ 판정이 나빠지는 조건

미국 규제 강화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이 입법으로 구체화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재급락과 함께 메모리 매도가 다시 나옵니다.

5일선 이탈
종가가 5일선 1,204,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반등이 꺾인 것이고 볼린저 하단 1,093,981원이 다음 지지선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재개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가 11/6의 2.8조 원 수준으로 다시 늘면 추가 하락 신호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DART · 비즈워치 · 야후 파이낸스 · 야후 파이낸스 분기표·연간표, DART 사업·분기보고서 · 파이낸셜뉴스

리포트 원문: lightview.kr/report_hynix_20261112 · 이 요약은 원문에서 핵심만 옮긴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4 분기 실적 단위 조 원

	25년 2분기	3분기	4분기	26년 1분기	2분기
매출	22.2	24.4	32.8	52.6	**79.3**
영업이익	9.2	11.4	19.2	37.6	**60.5**
순이익	7	12.6	15.2	40.3	**93.8**
영업이익률	41.4%	46.6%	58.4%	71.5%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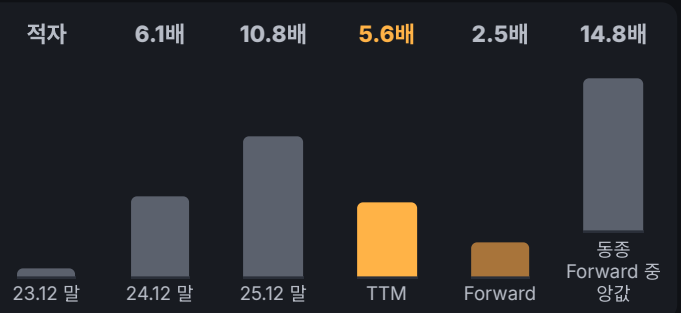
영업이익률
76.3%
1년 전 41.4%

매출총이익률(야후 기준)
83.2%
1년 전 53.9%

영업현금흐름률
82.5%
1년 전 41.2%

잉여현금흐름률
68.4%
1년 전 20.4%

05 PER 변화



06 동종 비교(외부 목표가 0건)

기업	P/S	시가총액
SK하이닉스 000660	**4.8배**	**약 903.3조 원**
삼성전자 005930	2.5배	약 1,193.3조 원
삼성전기 009150	5.4배	약 67.1조 원
한미반도체 042700	31.7배	약 17.5조 원
DB하이텍 000990	2.7배	약 4.1조 원

07 재무 체력

현금·단기투자 (6/30)
88조 원
17.1조 원 → +415.0%

총부채 (6/30, 야후 기준)
21.1조 원
24.4조 원 → −13.4%

자기자본 (6/30)
262.4조 원
87.1조 원 → +201.1%

발행주식수 (6/30)
7.11억 주
6.90억 주 → +3.0%

08 최근 뉴스

11/11 11/10·11 이틀 연속 반등, 종가 1,277,000원
11/10 +6.69%에 이어 +5.36% · 11/6 저점 1,132,000원보다 +12.8% · 거래량 344만 주는 20일 평균의 0.86배

11/6 코스피 −6.02% 급락, 장중 서킷브레이커·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5,059.69 마감 · 외국인 2.8조 원 순매도 ·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2% 넘는 하락

11/5 하이닉스 −9.46%, 2거래일 연속 급락
10/29 종가 1,526,000원에서 5거래일 만에 −17.2% · 거래량 428만 주는 20일 평균 수준

09 다가오는 일정

11월 중순 · 26년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예정
영업현금흐름·설비투자·EPS 공식 값 확인 · 회사 확정 일정 아님

11월 30일 · 3분기 배당 기준일(주당 2만 원)
정규 1만 원+키옥시아 투자이익 특별배당 1만 원 · 배당 총액 약 14조 원

1월 27일경 · 26년 4분기 실적 예상일(야후 추정)
예상 매출 131.5조 원 · 예상 EPS 120,252원 · 회사 확정 일정 아님

10 주요 리스크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건설 중단 요구)
영향 상 · 가능성 상 · 확인 규제 구체안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외국인 순매도 재개(11/6 2.8조 원)
영향 상 · 가능성 중 · 확인 코스피 외국인 순매매

영업외손실 확대(3분기 32.6조 원)
영향 중 · 가능성 중 · 확인 11월 중순 분기보고서 주석

11 체크포인트

★★★ 11월 중순 분기보고서
영업현금흐름·설비투자·영업외손실 내역을 확인합니다. 2분기 영업현금흐름 65.4조 원 수준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 20일선 1,308,100원
종가 기준 회복 여부와 함께 거래량이 20일 평균 400만 주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구체적인 입법이나 건설 중단 조치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DART · 비즈워치 · 야후 파이낸스 · 야후 파이낸스 분기표·연간표, DART 사업·분기보고서 · 파이낸셜뉴스
리포트 원문: lightview.kr/report_hynix_20261112 · 이 요약은 원문에서 핵심만 옮긴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6 LightView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